



대한뉴팜(주) 대표 배건우



낙농가의 골칫거리 젖소 유방염 예방 · 치료에 주력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 위해 34년간 노력해온 대한뉴팜(주)

대한뉴팜(주)은 1984년 사료업체에 첨가제를 공급하고 동물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출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제조 및 도매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산과 비교해 뒤지지 않은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며 국내 축산업계 및 농가에게 이를 공급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노력은 34년간 계속되어 왔고 건강보조식품, 인체의약품, 바이오 등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 일조했다. 국내 동물약품업계의 또 다른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대한뉴팜(주)(대표 배건우)을 찾아가 봤다.



▲ 대한뉴팜(주) 사무실 모습

국내 최초 젖소 유방염 다가백신 ‘히프라 스타박’ 단독 판매

대한뉴팜이 생산·공급하고 있는 동물약품은 120여 종이다. 이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품은 지난 3월 런칭한 젖소유방염 백신 ‘히프라 스타박’이다. 히프라 스타박은 동물용백신 글로벌 기업인 히프라와 단독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한 제품으로 젖소 유방염의 주요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대장균(*E. coli*)을 모두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현재 유럽의약청(EMA)에 최초로 등록된 유방염백신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됐으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화농, 체세포수 상승)이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또한 대한뉴팜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결과에서도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유방염은 주로 황색포도상구균과 응고효소음성 포도상구균(CNS)에 의해 생성되는 다당류의 바이오필름(Biofilm)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바이오필름

이 세균을 유방에 부착하게 하고 항생제 내성을 유발해 고병원성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히프라 스타박은 이런 바이오필름 생성 자체를 막는데다 세균 증식을 억제시켜 유방염을 예방한다. 특히 기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쟁제품보다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2가지 균주와 더불어 응고효소음성 포도상구균(CNS) 및 대장균군(Coliform)에 대한 교차방어까지 가능한 ‘다가백신’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대한뉴팜 동물약품사업부 박정호 팀장은 “히프라 스타박은 기존 백신과 달리 주사 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비유기 중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린다”며 “건유기, 비유기, 처녀소 관계없이 1회 주사



▲ 국내 최초 젖소 유방염 다가백신 ‘히프라 스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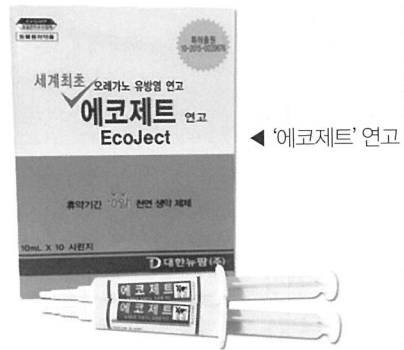
▲ 히프라 스타박 런칭기념으로 열린 지역 세미나 현장

후 3주후에 2차, 2차 주사후 3개월후에 경부 주사 (3.3.3 protocol)하는 것이 우군 일괄 관리, 감염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계 첫 천연 생약 오레가노 오일 유방염 ‘에코제트’ 연구

유방염은 젖소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체세포 수 증가, 유질의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한뉴팜은 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유방염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다. 이에 유방염 치료제인 세파레겐, 시너제트를 젖소 유방염 치료 프로그램으로 도입했으며, 2015년 항염증, 항산화,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된 천연물질 오레가노 오일을 기반으로 세계 첫 천연 생약 유방염 연고인 ‘에코제트’를 개발했다.

연구를 통해 오레가노 오일이 가진 50가지 유효 성분 중 카바크롤과 티몰이 강력한 항균·항진균 작용을 해 유방염의 주요 원인균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한뉴팜은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원인균 치료와 체세포 수 감소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유방염 전문 치료제로 특허출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대한뉴팜은 줄기세포 분야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면역 증강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한뉴팜(주) 연구소의 모습



▲ 대한뉴팜(주)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

대한뉴팜은 동물약품 이외에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료 수입 사업에 뛰어 들었다. 80년대 초반에 회사를 세우며 조사료 관련 사업을 잠시 진행했지만, 약품 사업에 더 집중하고자 확장을 보류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다. 특히 총괄책임으로 30년간 농협에서 조사료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정진태 전무를 영입했고, 현재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호주산 조사료를 수입, 국내 TMR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뉴팜은 ‘키토산 강화우유’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노쇄해진 세포를 활성화하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질병을 예방해주는 키토산을 젖소에게 공급해, 이 젖소에서 키토산 강화우유를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현재 1차 실험 결과 키토산이 잔류하는 것을 확인한 단계이며, 더 많은 실험단계를 거쳐 상용화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물약품 및 조사료 시장에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며 낙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뉴팜의 도전이 앞으로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주)



▲ 축우 미네랄블록과 황토미네랄 블록